



◇간헐중가 정상에 선 엄홍길

엄홍길은 누구?

히말라야 14좌 모두 올랐다

엄홍길에게 있어서 산은, 들고 다닐 수 없는 한 권의 커다란 교과서였다. 1960년 경남에서 태어나 4살 때부터 도봉산 중턱에서 자라게 되었으니, 어쩌면 그에게는 걸음마부터가 산행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듯 산과 일찍부터 인연을 맺은 그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해군에 입대하여 특수부대(UDT)를 자원한다. 약간은 의아스런 선택으로 보이지만 유난히 모험과 개척을 좋아하는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의 심폐 기능과 약조에서의 적응 능력은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황영조보다 뛰어나다고 한다. 태생적으로 산악인의 몸을 받은 것이다. 거기에는 군시절 마라톤과 수영의 1인자에 오를 만큼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더하였다.

군 복무를 마치고 25세 때부터 전문 산악인의 길에 들어선 그는 1985년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28차례의 도전 끝에 2000년 7월 31일 K-2를 오르는 것으로 히말라야의 8000m급 봉우리 14개를 모두 올랐다. 13번의 실패를 딛고 선 빛나는 성공이었다.

그는 현재 아내 이순래 씨(30)와 딸 지은(4), 아들 현식(2)과 함께 고개만 빼면 도봉산이 보이는 의정부의 한 귀퉁이에 동자를 틀고 있다. 그리고 그는 요즘, 눈 산에서 살다 보니 얼굴 익힐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들과 친해 지는 재미에 흠뻑 취해 있다.

엄홍길의 히말라야 8,000m 등정일지

등반한 때	등반한 곳	높이
1985년 9월	에베레스트	8,848m
1993년 9월	초오유	8,201m
1993년 10월	시사람파	8,027m
1995년 5월	마칼루	8,463m
1995년 7월	브로드피크	8,047m
1995년 10월	로체	8,516m
1995년 5월	다울리기리	8,167m
1995년 9월	마나슬루	8,163m
1997년 7월	가세르브롬 I	8,068m
1997년 7월	가세르브롬 II	8,035m
1999년 5월	안나푸르니	8,091m
1999년 7월	낭가파르보트	8,125m
2000년 5월	칸첸중가	8,586m
2000년 7월	K-2	8,611m

히말라야는 어떤 산?

산스크리트어로 히마(hima)는 '눈', 알라야(alayas)는 '사는 곳'이란 뜻이니, 히말라야란 곧 '눈의 집'인 셈이다.

좁게는 인도 동쪽의 브라마푸트라 강에서 서쪽의 인더스 강에 이르는 2,500km의 산맥을 가리키지만, 파미르, 카라코람, 힌두쿠시 등 중앙아시아의 고봉 무리를 아울러 일컫기도 한다.

중국·부탄·네팔·인도·파키스탄에 걸친 이 산에는 8000m 이상의 봉우리만도 14개나 된다. 그래서 이 산은 '세계의 지붕'이자 남극과 북극에 이은 '제3의 극지'라고도 불린다.

고산설로 덮인 이 고산영동은 예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막는 장벽을 이루었다. 그러나 기원전 329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힌두쿠시를 넘어 뒤로 장진(張震)이 실크로드를 열었고, 이후 중국 당나라 때의 승려 현장과 '동방견문록'으로 널리 알려진 마르코폴로 그리고 고구려의 장군 고선지도 파미르를 넘었다. 오늘날엔 카라코람을 타고 넘어가는 아시아 하이웨이가 이곳을 달리고 있다.

구도하듯 한발한발... "등산=下心"

산문밖의 禪

산악인 엄홍길

"정복이라니요

산은 늘 거기 있는데

어쩌다 한번 올라

잠시 머물다 올뿐"

일 나간 어머니를 그리듯 먼산바라기하는 송아지의 눈빛을 담은 사람, 엄홍길의 첫인상은 그랬다. 어떤 물음에도, 대답을 하기 전에 눈꼬리에 웃음부터 머금고 마는 그 순화(順化)된 얼굴에서, 히말라야의 8,000m급 14좌를 완주한 산악인 엄홍길을 읽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세계에서 8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히말라야의 고봉 14좌를 모두 오른 산 사나이였다.

오랜 항해를 마치고 물에 오른 뱃사람들이 '육지 밭미'를 하듯, 산을 내려온 그 또한 방송 출연이나 이런저런 매체의 인터뷰 같은 번잡한 일상을 몹시 힘들어했다. 그렇지만 그는 짧지 않은 인터뷰 시간 내내 진지한 자세로 성가신(?) 손님들 대해 주었음 뿐 아니라,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가질 법한 우월함 같은 것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는 '정복'이라는 말 자체를 아주 싫어했다.

"정복이라니요. 답지도 않은 소립니다. 산은 늘 거기에 있을 뿐인데, 어쩌다 한번 올라 잠시 머무르다 오는 것을 정복이라 할 수는 없지요."

역시 그는 정상에 오른 사람답게 '하심(下心)'에 있어서도 정상급이었다.

"8,000m급의 산은 단순한 열정만으로 오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신이 품어 안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구도자적 자세로, 오로지 산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함께한 동료들 그리고 영원히 히말라야의 산사람이 되고 만 8명의 동지들과 함께 이룬 일입니다."

엄홍길의 겸손은 결코 외래적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산심(山心) 돈독한 불자이기도 하다. 팔경시 아래 도봉산 중턱에서 자

란 때문이다. 또한 그는 히말라야에 오를 때마다 세르파들과 함께 라마 불교식 산신제를 올린다. 간절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가 아니고서는 히말라야의 품에 안길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엄홍길에게도 실패와 좌절은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의 나이 스물다섯이 되던 1985년, 히말라야와의 첫 인연인 에

베레스트 원정부터가 실패였다. 이듬해에 다시 문을 두드렸으나 세르파 한 명을 잃고 정상은 눈 앞에 둔 8,800m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어 1989년 세번째 도전 끝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입맞춤을 했고, 이후 2000년 7월 31일 K2봉 정상에 서기까지 15년의 세월 동안 28차례의 죽음을 건 도전으로 14좌 완주이라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살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면서,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산과의 극적인 일체감은 한 순간이고 무시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릴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을 오릅니다."

그는 올 11월쯤 남극의 빈슨매시프를 다녀오는 것으로 7대륙 최고봉 등정에 나설 것이라 한다. 이미 아시아의 에베레스트, 유럽의 엘브루스, 남미의 아콩카과를 올렸으니 그 꿈 또한 그리 멀지않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엄홍길의 도전은 계속 될 것이다.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듯이.

윤재학 기자
(yunjh@buddhapia.com)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복령죽

<중일아침경>에 의하면 수행자의 섭생은 목장을 역제하는 엄격한 절제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곧 적게 먹어야 기(氣)가 열리고, 기가 열려야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7일은 성철 스님의 열반 7주기이다. 성철 스님은 열반에 드실 때까지 소식과 자연식으로 일관하셨

다. 스님에게 있어 음식은 곧 마음이어서 돈오돈수(頓悟頓修)에 일치하는 선식의 품격과 절도를 유지하셨던 셈이다. 스님이 생전에 드셨던 복령죽, 호두죽, 콩죽, 산에서 나는 마, 솔잎 차는 수행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건강식으로도 최고다.

음식과 관련된 스님의 일화도 많

강장효과 뛰어나고 머리맑게

다. 어느 해인가 스님들이 모두 산에 올라 나무를 심다가 배가 고파지자, 한 스님이 절에 내려가 떡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보던 성철 스님이 나무 심던 손을 멈추고 꽃아와 "그 떡이 먹고 싶으면 중 생활 끝내, 수행자는 모름지기 소식해야 했거늘 담장 떡을 마을 사람들에게 주고 외"라고 호통치신 일은 유명하다.

세간에 알려진 성철 스님의 선식을 보통 사람이 흉내내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솔잎 가루 섭생법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간단히

소개한다. 봄에는 동쪽, 여름에는 남쪽, 가을에는 서쪽, 겨울에는 북쪽 가지를 솔잎을 채취하여 그늘에서 말린 뒤 가루를 낸다. 생전에 스님이 이 솔잎가루, 새 순가닥, 검정콩가루, 검은깨가루 통밀가루, 꿀을 각 한 숟가락씩 섞어 맑은 물에 타서 하루 세 번씩(오전 11시, 오후 1시, 7시) 한 달을 먹으면 육신의 모든 병을 물리치고 2년을 먹으면 밤에도 대낮처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솔잎의 효능은 겨울에 뛰어나다. 솔잎 차는 성삼 스님들의 활액 순환을 돕고, 감기예방, 두통, 혈압에 특히 좋다.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백복령 10g, 찹쌀 100g
요리법 ①검은 검질을 벗긴 백복령을 가루로 만들고, 현미잡쌀은 충분히 불려 물 5컵을 붓고 끓인다. ②죽이 다 되면 백복령 가루를 넣고 다시 한번 끓인다.

효능 면역작용과 혈당치 강하작용, 강장효과가 뛰어나다. 머리를 맑게 하기 때문에 정신노도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과 수행생들에게 특히 좋다.

필지약력 약선식 연구가, <사람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택)의 저자